

해 외 출 장 결 과 보 고

연구과제명 또는 출장명: “유라시아 지식네트워크 구축” 정책토론회 참여
(블라디보스톡)

I. 출장 개요

1. 출장목적

-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주관하는 “유라시아 지식네트워크” 정책토론회에 참여하여, 극동러시아의 농업투자협력 관련 연구 발표 및 토론 참여

2. 출장개요

- 출장자, 출장지, 출장기간

출장자	출장지	출장기간
최지현 부원장	블라디보스톡(러시아)	2014. 4. 21. ~ 23. (2박 3일)
허 장 선임연구위원		
이대섭 연구위원		

3. 주요 내용

-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극동러시아에 대한 분야별 협력 및 투자방안 모색
 - 농업분야의 협력 및 투자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지원을 위한 논의
- 글로벌 식량위기에 대한 대안 모색을 위한 논의

4. 일정표(방문기관 등) :

No	일 자	출발지	도착지	방문지	수행 업무
1	4.21 (월)	인 천 (10:10)	블라디보스톡 (14:50)	◦ KE 981	◦ 출 국
2	4.21 (월) 17:00	체	재	◦ 현대호텔, 다이아몬드 홀	◦ Introductory Dialogue 참여
4	4.22 (화) 08:30 ~20:00			◦ 현대호텔, 다이아몬드 홀	◦ 정책토론회 참여 - 최지현 부원장: 농업투자 세션 토론좌장 - 허 장 선임연구위원: 농업투자 세션 토론자 - 이대섭 연구위원: 농업투자 세션 발표자
5	4.23 (수) 09:00			◦ 극동연방대학	◦ 2012 APEC 정상회담장, 극동연방대학 시설 등 시찰
6	4.23 (수)	블라디 보스톡 (15:50)	인천 (16:30)	◦ KE 982	◦ 귀국

II. 주요 결과

1. 한-러 극동 포럼 개요

□ 목적

- 한국과 러시아 간의 교류 확대 및 경제 협력을 통해 극동 러시아 지역의 장기적인 경제·사회 발전을 도모하고, 양국의 발전에 기여
- 한국의 5개 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각 분야에 대응하는 극동러시아 지역의 연구자들이 정례적인 포럼을 개최하여 양국간 협력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류하고 실행방안을 발전시키고자 함.

※2011년 제1차 한·러 극동포럼 개최 이후 매년 포럼을 개최해왔으며, 2014년 제4차 한·러 극동포럼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유라시아 지식네트워크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블라디보스톡 토론회’로 개최함

- 일시 : 2014년 4월 21일(월) ~ 23일(수)

- 장소 : 현대호텔 다이아몬드홀, 블라디보스토크
- 주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주관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주 블라디보스토크 대한민국 총영사관

□ 포럼 일정

- 4월 21일 : “한러 협력 다이얼로그”를 통해 주요인사간 네트워크 구축, 의견 교류를 통해 한러간 협력방안 등을 논의
- 4월 22일 : 물류·해양, 지역개발, 농업, 환경, 에너지 등 5개 분야에 대한 한러 양국의 발제 및 토론
- 4월 23일 : 2012년 APEC 정상회담장 및 극동 연방대학교 방문
※세부일정은 붙임자료 참조

2. 한-러 극동러시아 포럼 주요 결과

□ 농업투자 및 한-러 협력 방안(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농업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 협력 강화 필요
 - 러시아 극동농업연구기관이 수행한 옥수수, 대두, 벼 등에서의 생산성 제고 성과를 극동러시아에 진출하는 한국기업과 공유함으로써 민간기업 진출 및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 강화 필요성 강조.
- 농업투자협력 관련 정책적 지원 확대 필요
 - 농업투자 확대를 위한 연방 및 극동러시아 정부의 노력이 확대되고 있음. 현재 농업분야는 이미 민간업체들이 진출해 있으므로, 러시아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하고, 세부적인 지원조치가 시급히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 물류 개선을 위한 조사 및 공동 연구 착수 제안
 - 한-극동러시아 농업협력 확대를 위하여 장기적으로 농산물 저장시설, 곡물터미널 등 유통 및 수송과 관련된 종합적 시설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보이며, 이를 위한 시설투자 위치, 규모, 운영 방안 등에 대한 공동조사 및 연구 제안.

□ 해양, 물류(해양수산개발원)

- 해양, 물류분과는 기존 한국기업의 러시아 투자가 자원개발 및 물류자동화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어 한국과 러시아 간 시각차이로 인한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고 진단. 또한 북극항로에는 허브항구가 없고 정기 항로 운영시 위험부담이 크며, 보스토니치 항구 등은 미래에 대한 강력한 항구로 발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함.
- 따라서 분과에서는 한국과 러시아 양국 협력을 위해 단계별 접근, 극동지역 물류 인프라 투자를 선결하여 경제를 발전시키고 내륙에 연결할 필요가 있어 지역경제·산업발전, FDI 유치, 복합운송체계, 3자 협력(남북러, 한중일) 등을 제안함.
- 더불어 러시아측은 북극항로 구축의 현실화 방안과 관련하여 선박안전 보장체계 구축이 시급하며, 부산과 블라디보스톡 항을 허브항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고, 자루비노항 곡물터미널 등은 민간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공동연구가 필요하다 제안함.

□ 지역개발(국토연구원)

- 러시아측(Shereykin 차관)은 극동지역 투자개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규제완화, 세금감면, one-stop 투자서비스 제공 등)를 제공할 용의가 있다 밝히고, 12개 특별경제구역을 성장거점으로 선정하여 투자 유치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함(자루비노 등 4개 특별구역 우선추진).
- 한국측(조진철 박사)은 남-북-러 3각 협력사업으로 나진-하산 특별구역의 중점 개발을 독려하고 자루비노 곡물터미널 및 우수리스크 농수산 가공산업단지 개발 등을 제안함.
 - 극동연방대학과 성장거점 개발협력 로드맵 작성 공동연구 추진 제안
- 투자유치 초기단계에서는 과급영향이 큰 Anchor Project 중심으로 성공 모델을 먼저 만들 필요가 있고, 대학, 연구 중심의 R&D 기능과 연계한 성장거점 클러스터 개발이 필요함.

- 도시 생활인프라 개선으로 젊은 인재를 극동지역으로 유입되도록 해야 성장거점개발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으며, 한국 성장거점개발 경험 공유로 실천 가능한 투자 메카니즘 도출을 위한 한-러 공동연구 협력사업(KSP)의 추진을 제안함. 또한 지역 인재개발에 대한 투자도 필요하다고 제안함.

□ 환경(환경정책평가연구원)

- 두만강 유역의 TEIA 프로토콜 합의를 위한 정부, 연구기관 및 민간 차원의 지속적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경 간 개발사업에 대한 다자간 영향평가 및 환경관리 체계 마련을 위한 실무적 전문가 Working Group 구축을 제안함.
- 한-러 지속가능발전연구소(Korea-Russia Sustainable Development Institute, 가칭) 설립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정책 구현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시행을 제안.

□ 에너지(에너지경제연구원)

- 러시아측은 에너지 분야에서 극동 러시아 지역의 경제 활성화, 전력 계통의 효율화 및 미래 에너지 수요 대응을 위해 신규전원 개발, 노후화 전력설비 대체를 계획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동북아 인근 국가들로의 전력수출, 신재생 에너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 한국의 전력 계통문제(전력수립, 고립화 등)와 효율적인 에너지원 사용, 러시아의 극동지역 전력 인프라 개발을 위해 한국-러시아 전력망 연계는 하나의 공동협력 사안이 될 수 있으며, 동북아 국가 전문가(정부, 산업계, 연구기관)들이 참여한 전문가 협의체 구성의 필요성을 강조함.
- 전력 분야는 동북아시아 수퍼그리드(super-grid)측면에서 국가 전체(러시아, 중국, 북한, 한국, 일본 등)를 고려한 한-러시아 전력연계 전략수립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한국-러시아 실무추진 기관 간 공동 타당성조사 진행과 양국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제안함.

3. 시사점

□ 농업부문 투자 확대 방안 마련 필요

- 국제곡물 시장의 불안정성이 증가함에 따라 세계 5위 곡물 수입국인 우리나라는 국제 곡물가격 및 수급 변동으로 인한 위험성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해외농업개발의 활성화 필요.
- 포럼과 관련된 5개 분야 중 실제 투자가 활발히 진행되는 분야는 농업이며(‘14.2월 현재 신고기업 기준 12개 기업 진출), 정부의 “해외농업개발협력법”에 따라 제정 지원도 병행하고 있으나 판매망 확보, 유통, 무역 등의 사업은 초보적 단계.
- 2013년 말 기준 현대중공업, 서울사료, 남양 등 12개 기업이 진출하여 약 10.8만ha의 농지 확보를 통해 약 2.2만ha를 개발하여 49천 톤의 곡물을 생산한 것으로 조사됨.
- 확보된 농지의 추가 개발 및 기술협력 등을 토대로 곡물 증산 가능

□ 극동러시아 농업투자 위험요인 감소 필요

- 생산 측면: 외국인의 토지소유가 제한적이고 추운 기후로 인해 영농시기가 짧으며, 비료, 농약, 종자 등 농자재 구입이 용이하지 못한 문제로 인해 기진출 기업의 경지이용률이 평균 30%도 못 미치는 수준.
- 내수시장 및 수출을 위한 유통망 협소: 극동러시아내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내수시장이 협소해지고 있고 수출 및 기타 지방으로의 판매망을 확보해야 안정된 생산 활동을 보장할 수 있음.
- 대규모 곡물을 운송할 수 있는 항만시설(곡물 터미널 등)이 없고 외부로 판매되는 곡물 또한 물류비용이 높아 사실상 내수시장을 공략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실정.
- 시설·인허가 지연: 한국 진출기업이 2년 전 저장시설을 설치하였으나, 주 정부의 인·허가 지연으로 불법 시설물로 운영 중(아로 5천톤 ‘11년 설치)

- 현대중공업은 10천 톤 저장시설 완공단계에 있으며, 추가로 18천 톤 시설을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으나 인·허가 지연을 우려

- 행정·통관 절차: 전기, 가스 사용 인가(신청후 6개월 소요) 및 농자재 통관시 절차가 복잡하고 장기간 소요되어 계획된 일정에 차질이 발생

□ 극동러시아 농업투자 기회요인

- 한반도와 연결된 지리적 접근성과 풍부한 미개발 농지자원:

- 극동러시아 전체 농지면적은 남한(1,690천 ha)의 3배(5,183천 ha)
*우리나라 민간 기업의 진출이 가장 활발한 연해주의 면적은 남한의 약 82%임.

- 러시아 정부의 아시아 국가들과 경제협력 강화 노력: 극동지역의 항만, 철도 현대화, 북극항로 개발, 아태지역으로의 석유 및 가스 공급, **농업개발 등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함.**

- '12.5월 “극동개발부(아샤에프 장관)”를 신설하고, 대규모 해외농업투자 유치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지원 및 정보제공, 협력포럼, 투자홍보 등의 업무를 추진.

- **Non-GMO 곡물 수요 급증:** 중국 및 일본 등 Non-GMO 곡물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현재 극동러시아에서 생산되고 있는 곡물은 전량 Non-GMO로 판매망 확대 전망

- 기타 요인: 극동러시아의 농업개발은 극동아시아의 역학관계, 북한 식량지원 및 인력활용, 우리나라 **농업기술의 해외진출 확대** 차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

- 특히 철도 및 항만 등에 대한 투자확대로 러시아 물류 시장의 선점을 통해 농산물 판매망이 확대됨과 동시에 극동아시아로의 수출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는 효과가 있음.

□ 한·러 농업부문 협력 방안

- 생산측면: 고부가가치 확보를 위한 생산기술지원 및 농기계 수리 전문가 확보
 - 극동러시아 지역에는 영농지원센터를 운영('14.3월, 농어촌공사)
 - 극동러시아에서 생산된 곡물의 품질보증(Certificate) 인증제 도입 필요
- 유통망 구축: 산지 저장시설 확대 지원, 환적 시설 구축, 수출 곡물 터미널 지분 참여 및 운영권 확보
 - 저장 및 환적시설 확보를 통해 곡물가격 변동성에 대비
 - *고가판매 저가저장 전략
 - 캐나다 수출 진흥 공사와 러시아 정부간 투자 협약('13. 9, 불쇼이 까멘항, 3억 3천만 달러), 러시아 쉘마그룹의 곡물터미널 구축 계획('14. 3, 자루비노항) 등이 추진되고 있음
 - 농업투자 및 곡물터미널(농촌경제연구원), 해상 물류(해양수산개발원), 러시아내 물류 및 곡물 유통망(러시아 농업과학연구소)의 공동연구, 가칭 “곡물 터미널 구축을 위한 타당성 분석 및 투자 협력 전략 수립 연구”, 추진 제안(포럼 결과 내용 참조)
- 국내 반입 확대를 위한 구조개선: 수입권 공매제도 활용 방안(aT 센터), 식용용 곡물 수입 후 불합격 처리에 따른 반송제도 재검토 필요*
 - *사료용 전환 가능성 검토를 통한 국내 반입 활성화 방안 마련

<붙임>

‘유라시아 지식네트워크 구축’ 을 위한

블라디보스토크 토론회

(제4차 한·러 극동포럼, 2014.4.21~23)

프로그램

2014. 4

1. 세부 프로그램

□ 4월 21일(월) (16:00~20:00)

장소 : 현대호텔 다이아몬드홀, 블라디보스토크

시간	주요내용
14:50	블라디보스토크 도착
17:00-19:00	한러 협력 다이얼로그 ○ 「유라시아 지식네트워크」 소개 · 권청재 본부장(경제인문사회연구회) ○ 「극동포럼」 소개 · 이정택 회장(한국APEC학회) ○ 모두 발언 · KMI 원장 (극동과 시베리아지역 물류개발과 한·러협력) · KRIHS 원장 (극동러시아 성장거점개발과 한·러협력) · KREI 부원장 (극동러시아농업투자와 한·러협력) · KEI 원장 (극동월경성 환경영향평가와 한·러협력) · KEEI 부원장 (IPP 극동지역 공동발전과 한·러협력) ○ 결론 · 한·러 동의 하 협력전략, 실행방안 정리
19:00~20:00	만찬 (주 블라디보스토크 대한민국 총영사관 주최)

<한러 협력 다이얼로그 참석자(안)>

한국 측		러시아 측
국회	1. 김정훈 정무위원회 위원장	1. 고르차코프 연해주의회 의장(토론 좌장)
정부	2.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토론 좌장)	2. 시도렌코 연해주정부 부지사
	3. 이양구 주블라디보스톡총영사	3. 멜라메드 국제지역발전센터 소장
연구 기관	4. 안세영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4. 세메니힌 극동해운항만연구소장
	5. 김성귀 해양수산개발원장	5. 라린 러 과학아카데미 극동연구소장
	6. 김경환 국토연구원장	6. 미정
	7. 이병욱 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	7. 미정
	8. 최지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8. 미정
	9. 김현제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원장	9. 미정
학계	10. 박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前국회의원)	10. 오가이 국립해양대 총장
	11. 김석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11. 미정
	12. 구정모 강원대학교 교수	12. 미정
기업	13. 이재균 한국선주협회 상임고문 (前 국토해양부차관)	13. 미정
	14.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	14. 미정

□ 4월 22일(화) (09:00~20:00)

장소 : 현대호텔 다이아몬드홀, 블라디보스토크

《개회식》

사회: 이정택 회장(한국APEC학회)

시간	주요내용
08:30-09:30	등록
09:30~10:00	개회식 ○ Opening Remarks · 안세영 이사장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축사 · Miklushevsky · Gorchakov · Ivanets (Ministry of Far East Development) ○ 기조발제 · Melamed I.I (General Director, International Center of Regions Development)
10:00~10:15	Coffee Break

시간	주요내용
10:15~11:15	제1세션 극동과 시베리아지역 물류개발과 한·러 협력 계획 ○ 좌장 · 김성귀 원장(한국해양수산개발원) · Sergey A. Ogay 총장(MSU) ○ 발표 1 · 이성우 박사(한국해양수산개발원) ○ 토론 1 · Novoseltsev Kholosha (FERMI) ○ 발표 2 · Sergey M. SMIRNOV (MSU) ○ 토론 2 · 전찬영 박사(한국해양수산개발원)
11:15~12:15	제2세션 극동러시아 성장거점 개발과 한·러 협력

시간	주요내용
	○ 좌장 · 김경환 원장(국토연구원) · Victor D. Kalashnikov (FE Region Representative) ○ 발표 1 · 조진철 박사(국토연구원) ○ 토론 1 · Latkin 교수(Vladivostok Univ. of Economics and Services) ○ 발표 2 · Leonov(Russian Union of Industrial Enterprises Primorye branch) ○ 토론 2 · 정일호 박사(국토연구원)
12:15~14:00	점심 (전원 뷔페 /VIPs 30명 에메랄드)
14:00~15:00	제3세션 극동러시아농업투자과 한·러협력
	○ 좌장 · 최지현 부원장(한국농촌경제연구원) · Sergey Sidorenko (Vice-Governor of Primorye in charge of Agriculture) ○ 발표 1 · 이대섭 박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토론 1 · Green Leaves Agro Holding Company ○ 발표 2 · Chaika Anatoly K. (Primorye Research Institute of Agriculture) ○ 토론 2 · 허장 박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
15:00~16:00	제4세션 국경지역개발이슈와 극동월경성환경영향평가 필수요건
	○ 좌장 · 이병욱 원장(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Peter Ya. Baklanov 교수 (Academician of the RAS, Director of Pacific Geographical Institute, FEBRAS) ○ 발표 1 · 전동준 박사(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토론 1 · Dr. A. N. Kachur (FEBRAS)

시간	주요내용
	○ 발표 2 · Dr. S. V. Moninets (MSU) ○ 토론 2 · 김지영 박사(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6:00~16:20	Coffee Break
16:20~17:20	제5세션 극동지역 전력에너지 산업 공동발전을 위한 한-러 협력
	○ 좌장 · 김현제 부원장(에너지경제연구원) · Nikolai Goryachev (FEBRAS Magadan) ○ 발표 1 · 박갑호 부장(한국전력공사) ○ 토론 1 · Vladimir Semchev (Kamchatka Regional Energy Center) ○ 발표 2 · Lovygin, Direct of Energy Dept. of Primorye Government(CEFEDCI) ○ 토론 2 · 홍광희 차장(한국전력공사)
17:20~19:00	Round Table Wrap Up 2014 극동포럼의 중요성과 향후 방안
	○ 좌장 · 유장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 Melamed I.I (General Director, International Center of Regions Development) ○ 세션요약 및 향후방안 · 물류개발과 한-러 협력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극동러시아 성장거점개발과 한-러 협력 (국토연구원) · 극동러시아농업투자와 한러협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극동월경성환경영향평가와 한러협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극동지역 전력에너지 산업 공동발전을 위한 한-러 협력 (에너지경제연구원) · 이상 5기관 발표를 기초로 Q&A (해당 기관이 응답) · 「유라시아 지식네트워크」 맥락에서 도출된 극동개발협력 선제적 지침 (Far East Forward Guidance)를 만장일치로 통과

□ 4월 23일(수)

시간	주요내용
오전	극동 연방대학교 방문
12:00-13:00	점심
16:00	귀국